

# KMI 주간해운시장 포커스

발 간 일 2023년 01월 09일  
감 수 고병욱 해운연구본부장

발 행 인 김종덕 원장  
주 소 49111 부산광역시 영도구 해양로 301번길 26



주간뉴스	01	건화물선	04	컨테이너선	15
탱커선	17	중고선	21	주요 해운지표	23

**건화물선** 크리마스, 신년 이후 재고 비축 수요 감소로 운임 낮은 수준 기록

**컨테이너선** 지난주 '컨' 운임지수(SCFI)는 전주 대비 46.4p 하락한 1,061.1p를 기록

**탱커선** 유조선 운임지수(WS)는 전주 대비 22.4p 하락한 55.0 기록, 중국 코로나19 감염 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등으로 원유 수요 둔화 지속

윤재웅 해운빅데이터연구 센터장 / jwoong01@kmi.re.kr | 051-797-4633  
황수진 전문연구원 / zin@kmi.re.kr | 051-797-4635  
류희영 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915

최건우 부연구위원 / ak8102@kmi.re.kr | 051-797-4638  
이상혁 전문연구원 / sanghyeoke@kmi.re.kr | 051-797-4625  
김병주 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 1. 주간뉴스

### 컨테이너선을 중심으로 대체연료 가능성 진행

- ▶ 컨테이너선에 대한 대체연료 발주가 다른 선종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컨테이너선의 경우 LNG를 포함하여 대체연료선에 대한 발주가 현재 224척에 이르고 있어 벌크(68척), 원유운반선(89척) 등 다른 선종에 비해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남
  - LNG의 비중이 높은데 벙커링 측면에서 안정성이 뛰어나기 때문으로 추정됨. 하지만 2022년 LNG가격 상승으로 인해 톤당 가격이 1,800달러에 이르기 때문에 단점으로 지적됨
- ▶ LNG 추진선에 대한 신조발주 비중이 높으나 그 외의 연료에 대한 발주도 진행중
  - 2022년 발주된 대체연료선 중 LNG 추진선은 81%를 차지해 총 222척이 발주되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
  - 메탄올 추진선박도 신조계약의 14%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소선박도 18척이 발주됨. 발주된 수소 선박은 대부분 소형선박으로 알려짐

자료 : <https://l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3481/Liner-sector-continues-to-lead-on-alternative-fuel-capable-ships>

최건우 부연구위원

051-797-4638, ak8102@kmi.re.kr

### 2023년 컨테이너선 인도량 기존 공급 과잉을 더욱 악화시켜

- ▶ 컨테이너 선사들은 2022년 1분기까지 공급 부족으로 인한 높은 운임이 이어져 수익성이 높았지만 이후 인플레이션 등으로 인한 수요 감소로 최근까지 컨테이너 운임 약세가 이어지고 있음
  - 고운임 높은 수익을 창출했던 선사들의 재투자는 공급 증가로 이어졌으며, 글로벌 공급망 혼잡 완화로 실제 가용 선대 또한 증가하였으나, 수요가 받쳐주지 못하여 수급 불균형이 악화됨
- ▶ S&P글로벌에 따르면 2023년 인도량은 260만 TEU를 기록해 11.3%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나, 수요는 1.9%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올해부터 시행되는 IMO의 EEXI(Energy Efficiency Existing Ship Index) 및 CII(Carbon Intensity Indicator) 규제가 초과 용량의 일부를 흡수할 가능성이 크지만, 현재 공급 과잉을 막기에는 역부족인 것으로 판단됨
  - 일부 분석가들에 따르면 공급 과잉으로 인해 화물을 확보하려는 선사들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화물 수요 회복 속도에 따라 운임 경쟁 시장이 재현될 가능성도 있다고 밝힘

자료 : [https://www.joc.com/article/new-container-ship-deliveries-exacerbate-existing-overcapacity\\_20230105.html](https://www.joc.com/article/new-container-ship-deliveries-exacerbate-existing-overcapacity_20230105.html)

김병주 연구원

051-797-4628, bjkim17@kmi.re.kr



## 1. 주간뉴스

###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 기대, 반면 파나마스선 운임에 미치는 영향 제한

- ▶ 코비드 19로 촉발된 중국과 호주의 무역 갈등으로 인해 지난 2년간의 지속된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이 비공식적으로 금지되었으나, 최근 이러한 금수 조치를 해제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됐으며 중국의 철강 제조업체를 포함한 4개의 국영 기업이 올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전망됨
  - 글로벌 투자은행인 제프리스(Jefferies)의 해운 분석가인 오마르 녹타(Omar NoKta)는 이번 금수 조치 해제가 양국의 무역 정상화로 이어질 경우 건화물선 시장의 톤마일 수요가 1.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반면 선박 중개업체인 브레마(Braemar)의 건화물선 관련 보고서는 양국 간 무역 정상화가 쉽지 않다고 전망함. 중국은 지난해 11월에 3억 9,130만 톤의 석탄을 생산했으며 이는 사상 최고치에 버금가는 수준임
  - 따라서 COVID-19로 인한 봉쇄 조치 완화로 중국의 석탄 공급망이 정상화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도 이와 같은 석탄 생산량을 유지한다면 값비싼 호주산 석탄 수입이 기대에 못 미칠 수 있음
- ▶ 이러한 금수 조치 해제가 글로벌 파나마스선 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크질 않을 것으로 전망됨
  - 발틱거래소(Baltic Exchange)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서 중국 남부로 이어지는 항로의 1월 첫째 주 주간 파나마스선 수익은 2020년 6월 이후 최저 수준인 일일 8,000달러를 기록하였으며, 운임 역시 4개월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세계 건화물선 시장이 침체임
  - 디비엑스 코모디티즈(DBX commodities)의 알렉산드르 클로드(Alexandre Claude)에 따르면 수입재 개가 제철용의 경우 예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되나, 발전용의 경우 인도네시아와 러시아산 가격이 저렴하기에 호주산 수입량 정상화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자료: <https://l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3505/China-lifting-Australian-coal-ban-offers-little-relief-to-panamax-fleet>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 흑해 곡물 수출 협정으로 1,600만 톤의 곡물 수출

- ▶ 합동 조정 센터(Joint Coordination Centre)는 흑해 곡물 수출 협정으로 전년 8월부터 12월까지 1,610만 톤의 농산물이 수출되었거나 수출되기 위해 항만에 대기 중이라고 보고함
  - 지난 7월 UN의 중개하에 합의된 흑해 곡물 수출 협정으로 우크라이나의 세 항만인 오데사(Odesa), 초르노모르스크(Chornomorsk), 유즈나이(Yuzhnyi)에서 곡물 및 관련 식품이 수출 가능해짐
  - 우크라이나 인프라부 장관인 올렉산드르 쿠브라코프는 흑해 협정으로 월 300만~500만 톤의 농작물을 수출하는 것이 목표로 한다고 밝혔으며, 전년 9월, 10월, 12월에 300만 톤 이상의 곡물이 수출됨
- ▶ 다만 11월의 경우 흑해 협정 갱신에 대한 불확실성과 선박의 적체를 초래한 물류 문제로 수출이 둔화되어 260만 톤의 우크라이나산 농작물이 수출됨
  - 흑해 곡물 협정은 식량 가격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함. 유엔식량농업기구(U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sation)에 따르면, 흑해 곡물 협정이 갱신으로 전년 11월 세계 밀 가격은 전월 대비 2.8% 하락함

자료: <https://lloydlist.maritimeintelligence.informa.com/LL1143461/Black-Sea-Grain-Initiative-facilitates-16m-tonnes-of-exports-since-August>

이상혁 전문연구원

051-797-4625 sanghyeoke@kmi.re.kr



## 1. 주간뉴스

### 그림자 선대를 이용한 러시아산 원유 수송 지속적으로 발생

- ▶ EU의 러시아산 원유 제재 조치를 회피하기 위해 그림자 선대를 이용한 러시아산 원유 거래가 지속되고 있음
  - 러시아와 동맹국들은 지난 6개월간 EU의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에 영향을 받지 않는 유조선단을 축적해왔으며, 해당 유조선 수는 약 200척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됨
  - 그림자 선대를 구성하는 유조선들은 대부분 15년 이상의 중고 유조선이며, 비서구권의 해상보험과 자금 조달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 이번 대러 제재로 인한 그림자 선대의 구성으로 중고 유조선 시장에서 아프라막스(약 75만 배럴급)와 수에즈 막스(약 100만 배럴 급)가 수혜를 입게 됨
  - VLCC(약 200만 배럴 급) 대비 작은 선박이 주로 거래가 되는 이유는 중국 외에는 VLCC가 들어갈 큰 항만이 부족하고 인도 등에는 VLCC를 수용 가능한 터미널이 많지 않기 때문임

자료: <https://www.energyintel.com/00000185-5ee3-d076-add5-7ef36e260000>

류희영 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 중국 2023년 1차 석유 수출 쿼터, 전년 동분기 대비 대폭 증가

- ▶ 중국 정부는 자국 내 정유사에 올해 1차 석유 수출 쿼터를 부여했으며, 전년 1차 물량 대비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중국은 휘발유, 경유, 등유 등에 적용되는 1차 석유 수출 쿼터로 1,899만 톤을 부여했으며, 이는 전년 1차 쿼터 1,300만 톤 대비 약 46% 증가한 수치임
  - 중국 국영 석유회사 Sinopec, CNPC, CNOOC, Sinochem과 민간정유사 Zhejiang Petrochemical사에 1,873만 톤이 할당됐고 나머지 물량은 Norinco, China National Aviation Fuel Company에 할당됨
- ▶ 중국 정부 관계자에 의하면 이 같은 결정은 자국 내 정제시설 생산을 촉진하고 수출 마진의 이점을 확보하여 부진한 내수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인 것으로 알려짐
  - 중국의 석유제품 수출 쿼터 증가는 오는 2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EU의 러시아산 석유제품 수입 금지에 의한 러시아산 석유제품 공급 감소 영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됨
  -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 팩트글로벌에너지(FGE)는 이번 쿼터 할당으로 중국 국영 정유사가 높은 가동률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향후 신규 정제시설의 확대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함

자료: <https://www.reuters.com/markets/commodities/china-raises-fuel-export-quotas-first-2023-tranche-consultancies-2023-01-03/>

류희영 연구원

051-797-4634, hyryu@kmi.re.kr

2. 건화물선<sup>1)</sup>

황수진 전문연구원 | zin@kmi.re.kr | 051-797-4635

## 1 주간평균운임

구분	1월 1주				
	주간평균운임	전주대비차이	2월물 FFA 주간평균가격	전주 대비 차이	
케이프선 5TC (달러/일)	12,788	▼ -7,505	-37.0 %	7,645	▼ -2,832 -27.0 %
파나막스선 5TC (달러/일)	12,256	▼ -2,077	-14.5 %	11,756	▼ -1,058 -8.3 %
수프라막스선 10TC (달러/일)	9,875	▼ -2,281	-18.8 %	10,226	▼ -1,116 -9.8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KMI

▲ 상승 ▼ 하락 - 혼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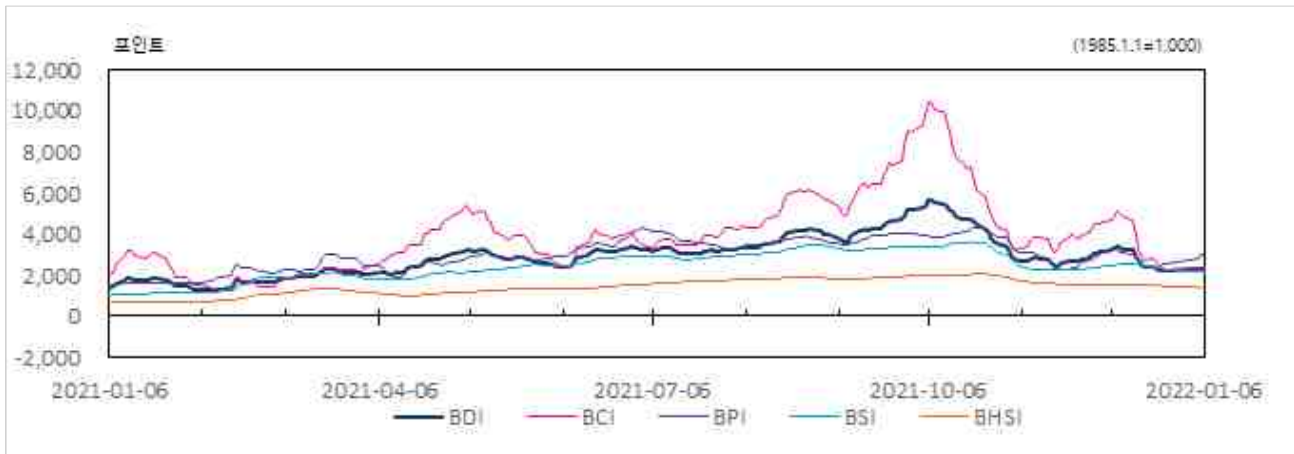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1) 2022년 12월 26일~30일, 2023년 1월 2일 불틱, 클락슨 등 데이터 미공시로 1월 1주는 2023년 1월 2일~6일, 전주(12월 4주)는 2022년 12월 19일~23일임



## 2 시장동향

## 건화물선 운임지수



자료: Clarkson

## 건화물선 운임

(운임지수: 포인트, 선형별 운임: 달러/일, 1년 용선료: 달러/일, 선형별 운임 평가치: 달러/일)

		1월 1주	전주대비	2023년			2022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건화물선 시장(현물) <sup>1)</sup>									
운임지수	BDI	1,176	-431	1,130	1,250	1,176	965	3,369	1,934
선형별 운임	케이프(5TC)	12,788	-7,505	12,473	13,561	12,788	2,505	38,169	16,177
	파나막스(5TC)	12,256	-2,077	11,693	12,944	12,256	10,956	30,746	20,736
	수프라막스(10TC)	9,875	-2,281	9,233	10,646	9,875	11,685	33,366	22,152
	핸디(7TC)	10,470	-1,806	9,931	11,051	10,470	11,941	32,166	21,337
1년 용선료	케이프	13,780	-4	19,750	19,750	19,750	10,125	23,000	16,591
	파나막스	15,429	-223	12,750	12,750	12,750	9,625	16,125	12,537
	수프라막스	11,836	-439	9,875	9,875	9,875	8,250	12,500	10,356
	핸디	8,545	-788	8,063	8,063	8,063	7,313	9,250	8,435
건화물선 시장(FFA)									
		2월물		2분기물		2023년물		2024년물	
		1월 1주	전주대비	1월 1주	전주대비	1월 1주	전주대비	1월 1주	전주대비
선형별 운임 평가치	케이프(5TC)	7,645	-2,832	13,089	3,198	14,442	935	15,072	1,122
	파나막스(5TC)	11,756	-1,058	15,106	1,524	13,578	-457	13,578	-457
	수프라막스(10TC)	10,226	-1,116	12,859	1,081	12,148	-421	11,939	-47
	핸디(7TC)	10,406	-873	12,507	875	11,528	-767	11,582	-24

주: 운임지수, 선형별 운임, 1년 용선료는 해당 주 평균값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 2 시장동향

## 원자재 가격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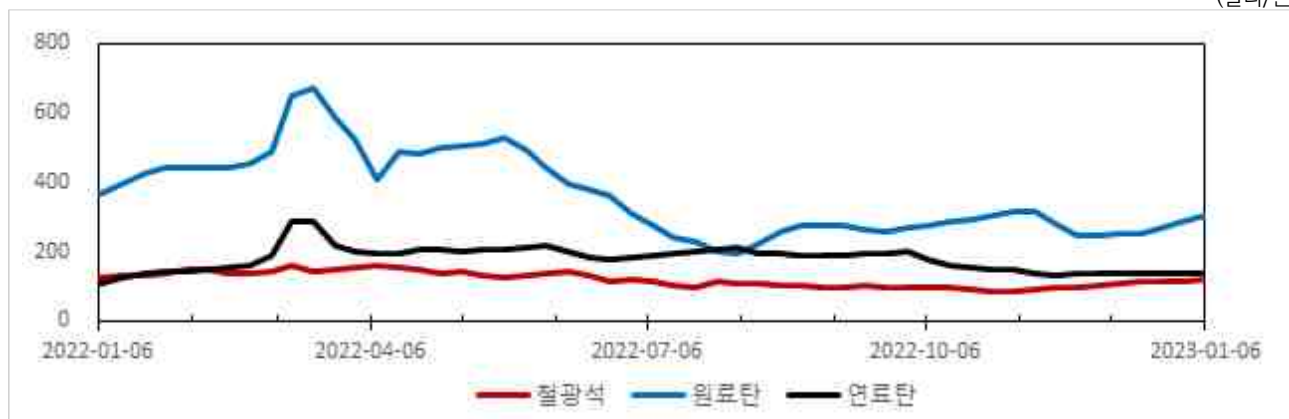
구분	2023년	2022년	전주 대비 차이				2022년			
	1월 1주	12월 4주					12월 3주	연평균	최저	최고
철광석	117.1	111.1	▲	6.0	5.4	%	125.3	120.3	82.4	159.8
원료탄	303.6	270.2	▲	33.4	12.4	%	347.1	365.0	196.1	670.1
연료탄	136.9	138.9	▼	-2.0	-1.4	%	107.2	179.1	107.5	288.2
대두	545.1	541.4	▲	3.7	0.7	%	483.3	569.4	503.5	638.0
옥수수	258.9	258.9	▲	0.0	0.0	%	236.0	273.1	231.6	319.9

자료: Clarkson,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 상승 ▼ 하락 — 혼조

## 철광석 및 석탄 가격 추세(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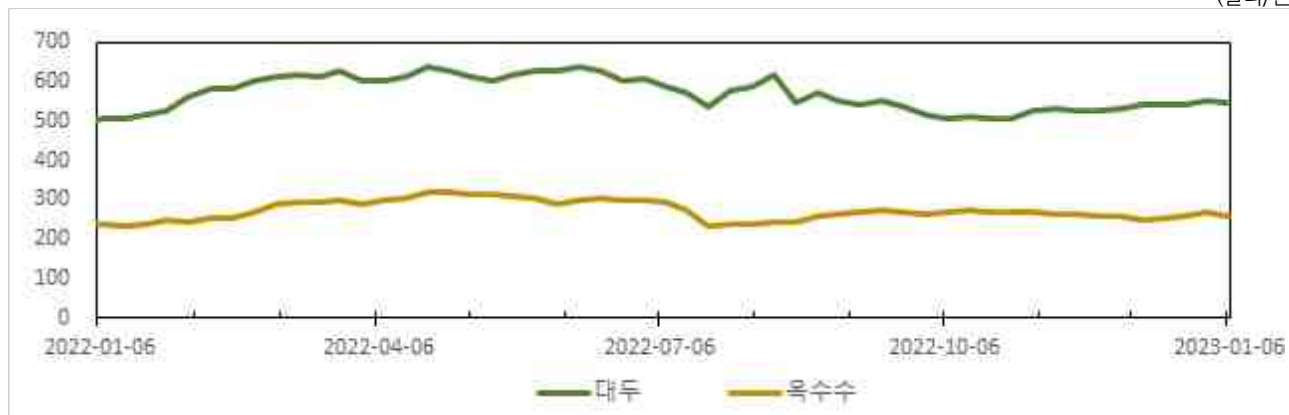
(달러/톤)



자료: Clarkson

## 곡물가격 추세(주간)

(달러/톤)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 3 케이프선-동향분석

## I 케이프선

## (운임) 크리스마스, 신년 이후 재고 비축 수요 감소

- 크리스마스 이후 연말에서 신년 등 휴일로 인한 시장의 전반적인 성약 활동 둔화와 계절적 비성수기 진입으로 운임이 낮은 수준을 기록함

## (동향) 중국 당국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경색 완화를 위한 추가 정책 발표

-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 알려지면서 시장에 운임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형성됨. 1월은 전통적 비수기로 운임이 약세를 보이고 있으나, 중국 당국의 다양한 추가 정책발표로 철강 원재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예상임
- 지난 1월 4일 중국 재정부장이 중국 경제 회복을 위한 재정통제 강화 및 지방정부의 부채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발표함. 특히 특수목적채권을 발행해 인프라 투자를 확대할 것으로 알려짐
- 블룸버그 역시 중국 당국이 부동산 시장의 유동성 경색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며, 기업의 재무건전성에 따라 지원 대상 자격 취득 여부가 결정될 것이라고 밝힘. 기업은 재무제표, 디폴트 이행 여부 등 서류를 제출한 후 평가를 통해 지원 대상 자격을 취득할 수 있음.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형 개발업체 위주로 지원하겠다는 당국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함

##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달러/일, %)



자료: Clarkson

## 케이프선 운임

(BC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2023년 1월 1주	2022년 12월 4주	전주대비차이	
BCI	1,542	2,447	▼ -905	-37.0%
스팟운임(5TC)	12,788	20,293	▼ -7,505	-37.0%
용선료	6개월	12,664	▼ -245	-1.9%
	1년	13,780	▼ -4	0.0%
	5년	13,977	▼ -106	-0.8%
FFA	'23년 2월물	7,645	▼ -2,832	-27.0%
	'23년 2분기물	13,089	▲ 3,198	32.3%
	23년	14,442	▲ 935	6.9%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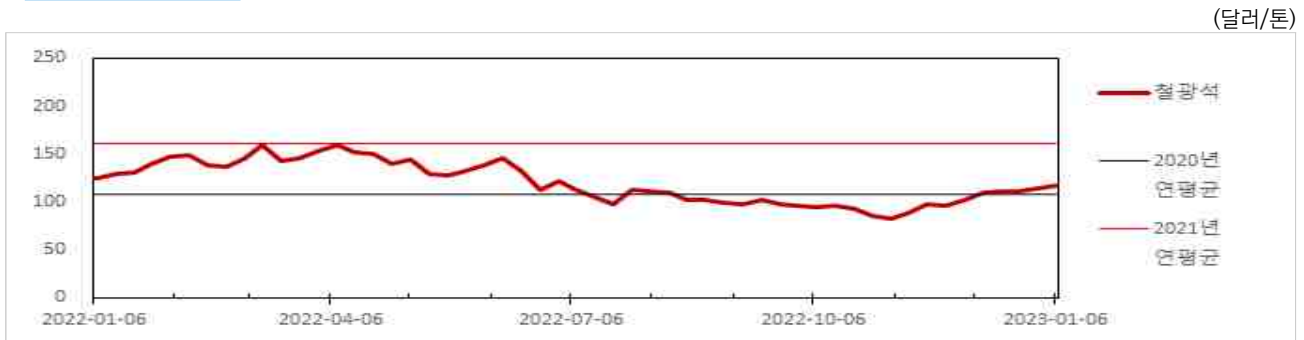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 3 케이프선-동향분석

■ 철광석 가격 : 지난 주 대비 5.4% 상승한 117.1달러/톤 기록

철광석 가격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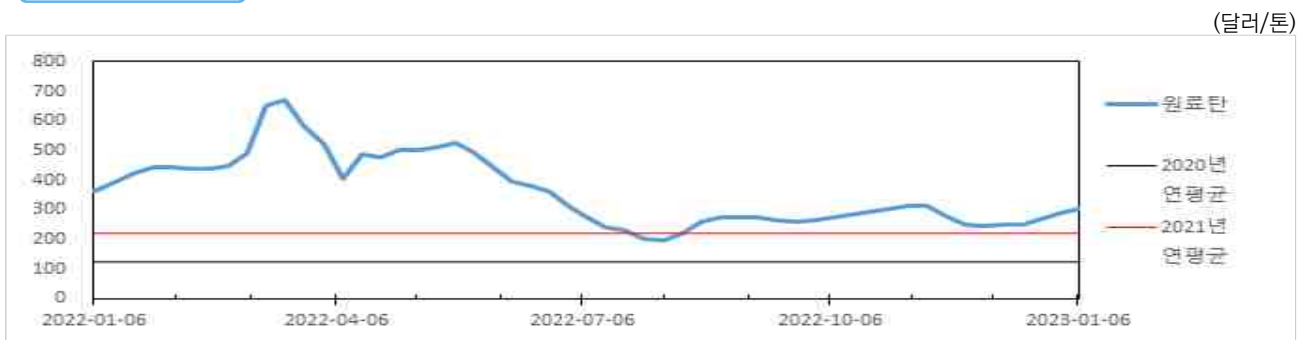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자료: Clarkson

■ 원료탄 가격 : 지난 주 대비 12.4% 상승한 303.6달러/톤 기록

원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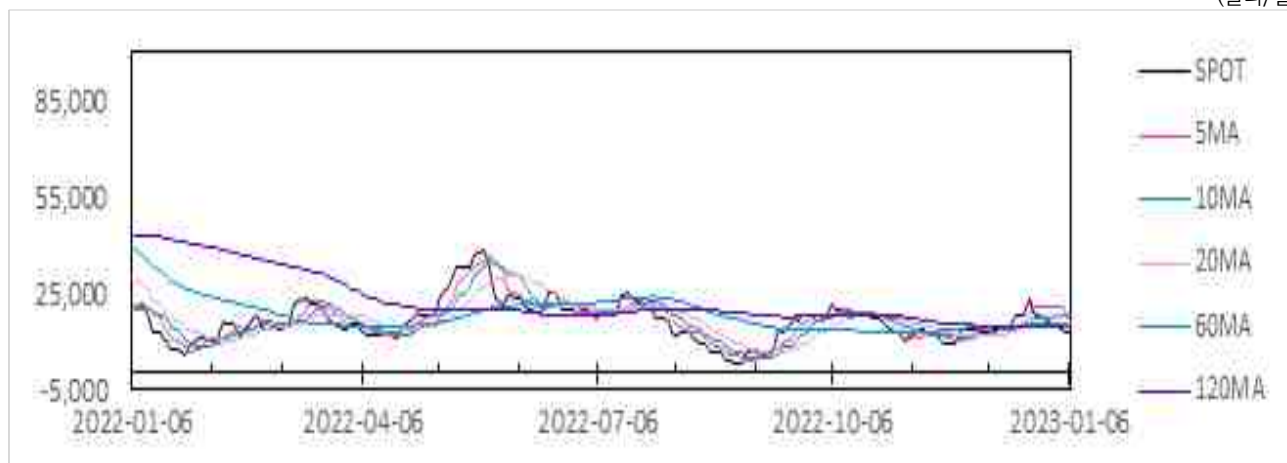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3 케이프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 3 파나막스선-동향분석

## I 파나막스선

## (운임) 휴일 영향으로 성악 활동 둔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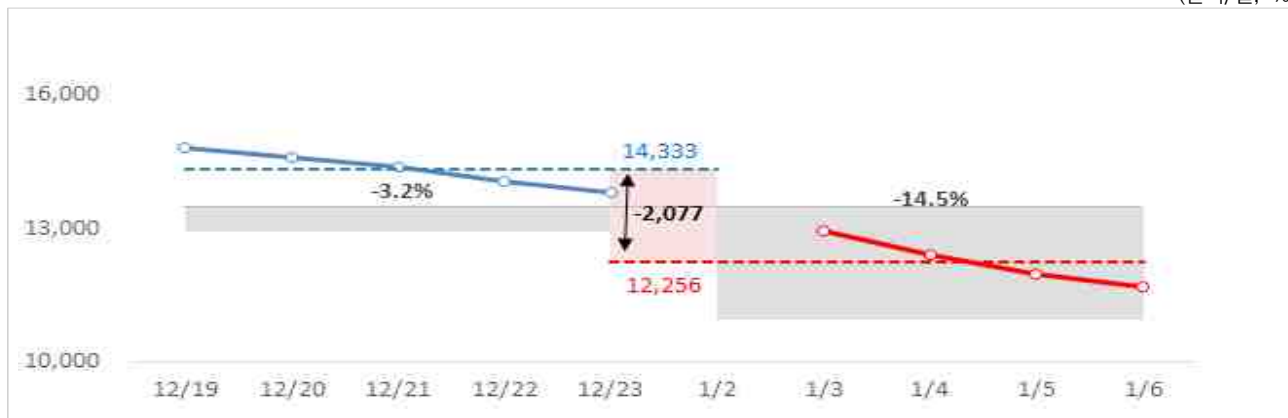
- 신년 등 휴일 영향으로 파나막스선의 성악 활동이 현저히 둔화함

## (동향) 중국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 신호

- 중국이 2020년부터 비공식적으로 금지한 호주산 석탄 수입을 재개할 것으로 파악됨. 이에 따른 석탄 무역 패턴의 변화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예상임. 한편에서는 수입 재개에 관해 중국 세관 측에서 아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지 않아 수입 재개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이르다는 평가도 나옴
- 또한 에스앤피글로벌플랫폼에 따르면 IEA는 중국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 조치를 해제한다고 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가격이 싼 러시아산 석탄을 수입하는 등 선택지가 다양해 호주산 석탄 수입을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임
- 로이터에 의하면 지난 1월 3일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NDRC는 국영발전소 3개소(Datang, Huaneng, China Energy Conservation Investment Corporation)와 제철소(Baowu Steel Group)를 소집해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파악됨. 1월 4일 중국 당국이 앞서 언급한 국영발전소 3개소와 제철소에게 호주산 석탄을 수입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짐

##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달러/일, %)



자료: Clarkson

## 파나막스선 운임

(BP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2023년 1월 1주	2022년 12월 4주	전주대비차이		
BPI	1,362	1,593	▼	-231	-14.5 %
스팟운임(5TC)	12,256	14,333	▼	-2,077	-14.5 %
용선료	6개월	15,430	▼	-530	-3.3 %
	1년	15,429	▼	-223	-1.4 %
	5년	13,050	▼	-103	-0.8 %
FFA	'23년 2월물	11,756	▼	-1,058	-8.3 %
	'23년 2분기물	15,106	▲	1,524	11.2 %
	23년	13,578	▼	-457	-3.3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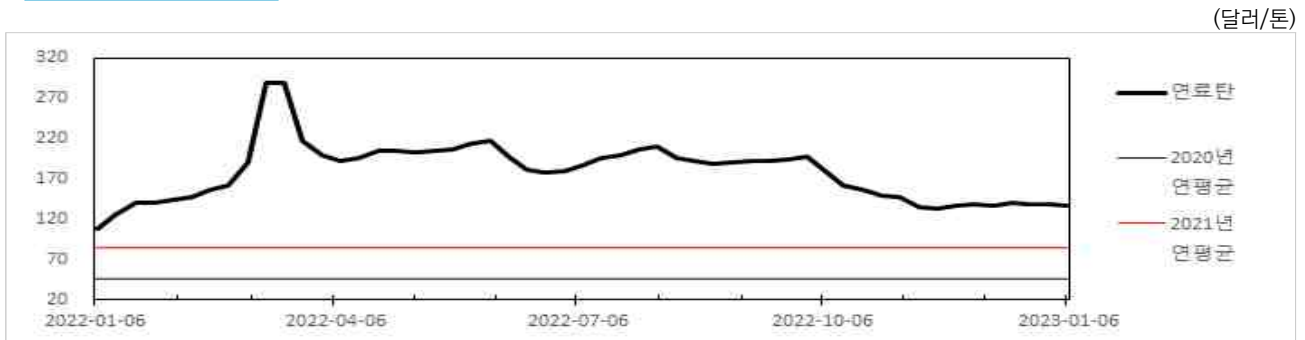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 3 파나마맥스선-동향분석

연료탄 가격 : 지난 주 대비 1.4% 하락한 136.9달러/톤 기록

#### 연료탄 가격 추이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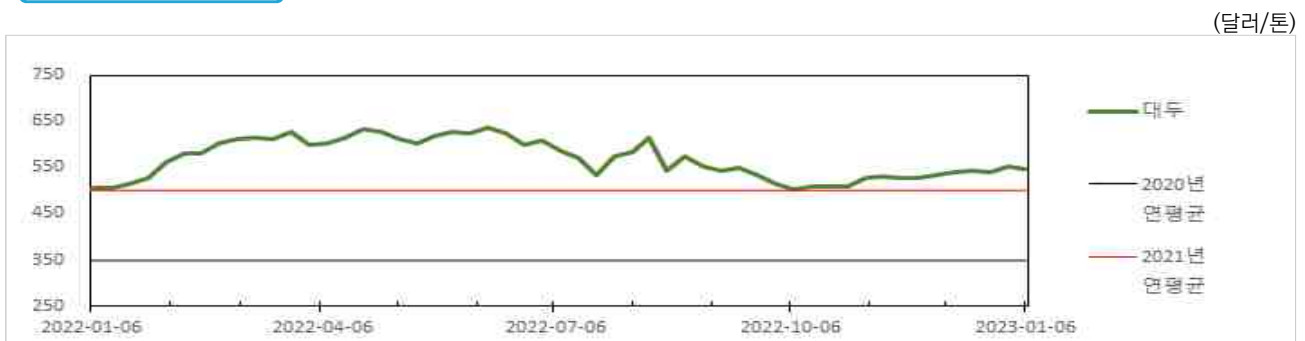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달러/톤)

구분	연료탄가격	전주대비차이		
12월 2주	136.7	▼ -1.1	-0.8	%
12월 3주	139.5	▲ 2.8	2.1	%
12월 4주	138.9	▼ -0.6	-0.4	%
2023년 1월 1주	136.9	▼ -2.0	-1.4	%

대두 가격 : 지난 주 대비 1.4% 하락한 545.1달러/톤 기록

#### 대두 가격 추이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달러/톤)

구분	대두 가격	전주대비차이		
12월 2주	542.0	▲ 3.0	0.6	%
12월 3주	541.4	▼ -0.7	-0.1	%
12월 4주	552.7	▲ 11.3	2.1	%
2023년 1월 1주	545.1	▼ -7.6	-1.4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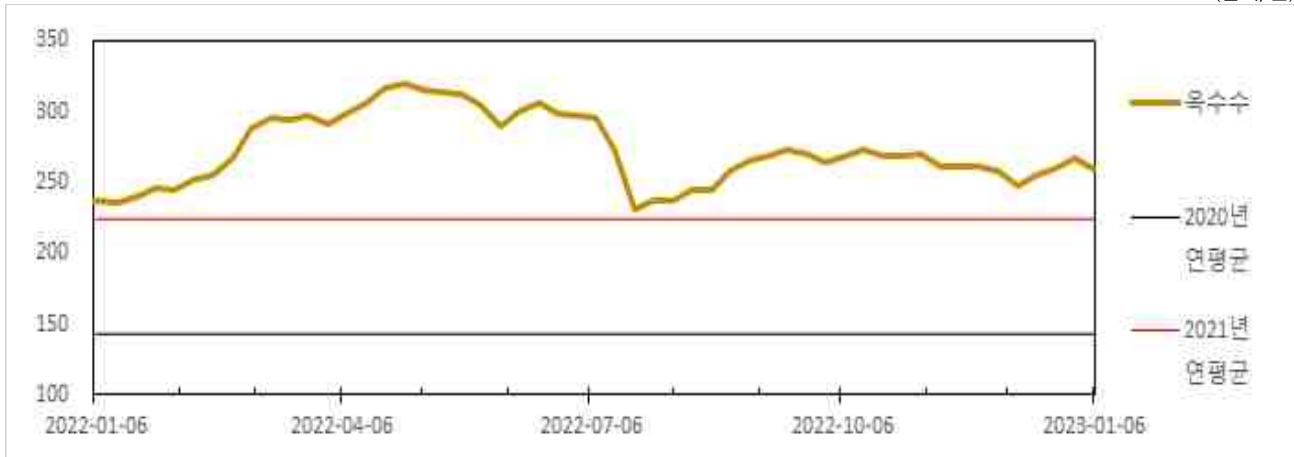


### 3 파나마스선-동향분석

■ 옥수수 가격 : 지난 주 대비 3.1% 하락한 258.9달러/톤 기록

옥수수 가격 추이

(달러/톤)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자료: 시카고상품거래소(CBO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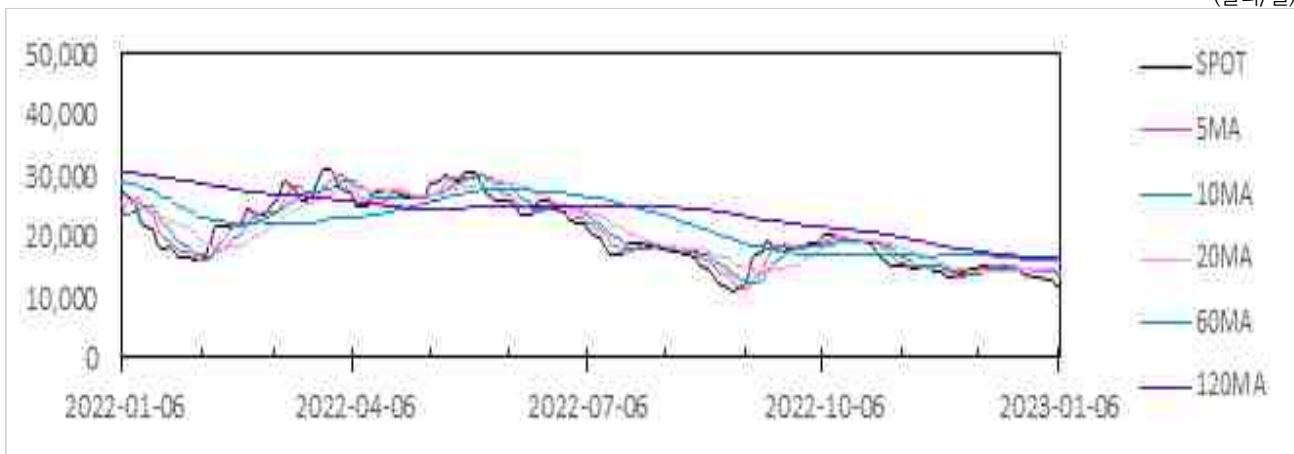
(달러/톤)

구분	옥수수 가격	전주대비차이		
12월 2주	254.4	▲ 6.4	2.6	%
12월 3주	258.9	▲ 4.5	1.8	%
12월 4주	267.3	▲ 8.4	3.2	%
2023년 1월 1주	258.9	▼ -8.3	-3.1	%

### 3 파나마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 3 수프라막스선-동향분석

■ 수프라막스선 : 지난 주 대비 3.4% 하락한 12,148달러/일 기록

#### (운임) 선박 공급과잉에 운임 하락폭 확대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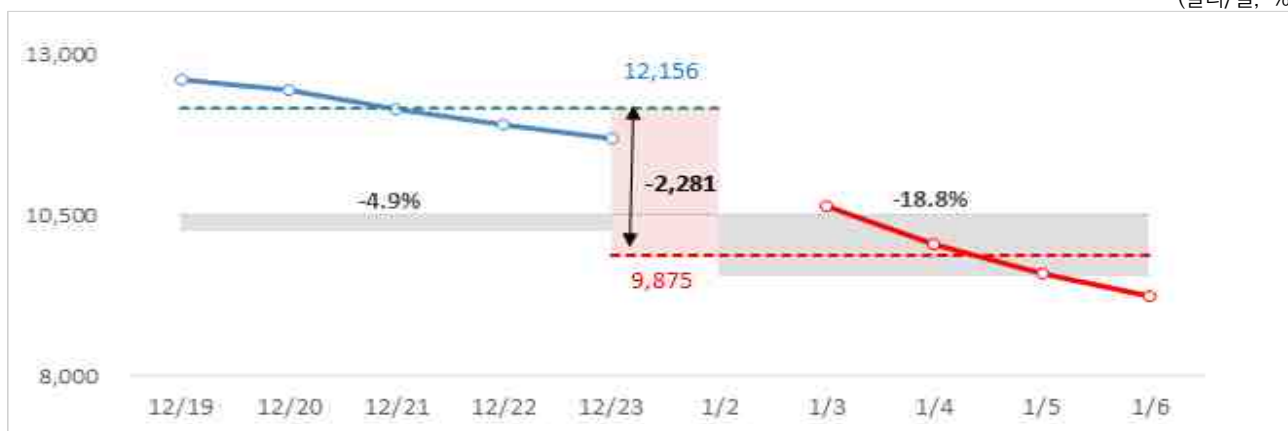
- 휴일로 인해 시장에 유입되는 신규 해상물동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가용선박수가 증가함

#### (동향) 중국의 호주산 석탄 수입 재개에도 무역패턴 당분간 유지 전망

- 로이터에 따르면 중국 당국이 호주 석탄 수입을 재개하려고 준비 중인 것으로 파악됨. 중국 당국이 호주와의 관계 개선과 무역 흐름의 차질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2020년부터 현재까지 지속된 호주산 석탄 수입 해제를 검토 중인 것이라고 설명함
- 최근 중국의 코로나19 방역 정책 완화에 따른 전력 소비가 증가함에 따라 석탄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수 수요충족을 위해 호주산 석탄 수입 금지를 해제하고자 결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으나, 중국이 자체 광산업체의 석탄 생산 증산에 성공해 당장 수입이 급증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분석임
- 또한 중국발전소는 일반적으로 발열량이 낮은 석탄을 소비하고 있어, 고품질인 호주산 석탄에 대한 수요가 크지 않은 상황인 것으로 파악됨. 이러한 중국 당국의 입장 변화는 일본과 같이 고품질 석탄을 수입하는 국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나, 이 또한 그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다수 전문가의 의견임

#### 최근 평균운임 차이 비교

(달러/일, %)



자료: Clarkson

#### 수프라막스선 운임

(BSI: 포인트, 스팟운임, 용선료, FFA: 달러/일)

구분	2023년 1월 1주	2022년 12월 4주	전주대비차이	변화 (%)
BSI	898	1,105	▼ -208	-18.8 %
스팟운임(10TC)	9,875	12,156	▼ -2,281	-18.8 %
용선료	6개월	11,850	▼ -1,030	-8.7 %
	1년	11,836	▼ -439	-3.6 %
	5년	11,368	▼ -82	-0.7 %
FFA	'23년 1월물	11,343	▼ -1,116	-9.8 %
	'23년 1분기물	11,778	▲ 1,081	9.2 %
	23년	12,569	▼ -421	-3.4 %

자료: Clarkson, Baltic Exchan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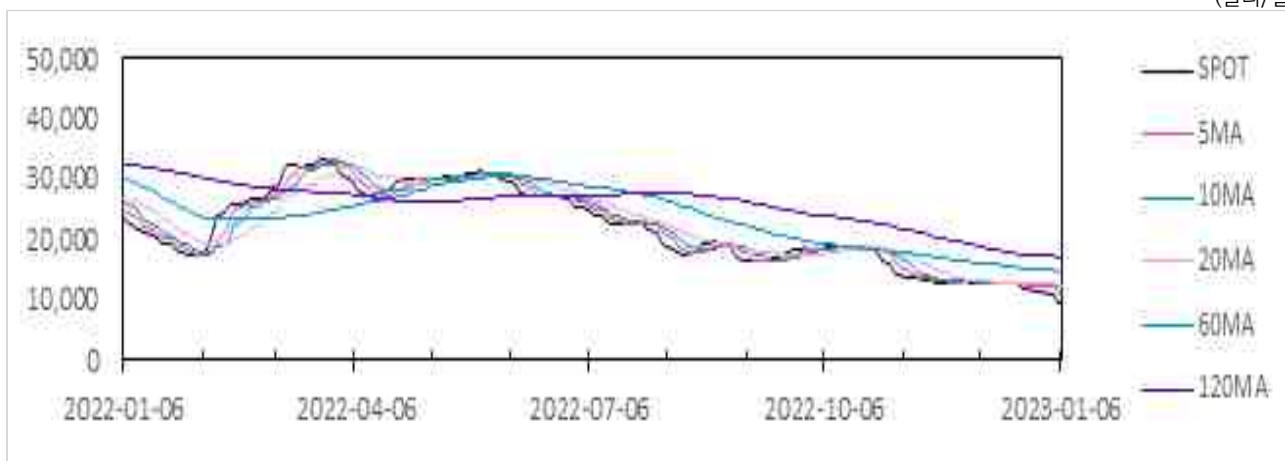
▲ 상승 ▼ 하락 - 혼조



### 3 수프라막스선-기술분석

이동평균

(달러/일)



자료: Clarkson, Baltic 자료를 활용해 저자 재가공



## 3. 컨테이너선

김병주 연구원 | bjkim17@kmi.re.kr | 051-797-4628

## 1 동향분석

I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 : 지난주 대비 46.4p 하락한 1,061.1p를 기록

## (운임) 컨테이너 운임 소폭 반등

- 컨테이너 운임지수(SCFI)는 아시아-북미 동부 항로를 비롯한 주요 항로 운임의 하락으로 전주 대비 46.4p 하락한 1,061.1p를 기록

## (현황) 컨테이너 운임 약세 지속 전망

- 공급 과잉으로 아시아-북미 및 아시아-유럽 항로 수익성이 매우 크게 감소하여 일부 선사들의 스팟 운임은 손익분기점 이하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남(Drewry)
- 중국의 코로나19 규제 완화 및 재고 보충 수요로 인해 춘절 전후로 출하량이 회복되어 단기적인 운임 상승 가능성이 있음(HSBC Global Research)

## 컨테이너 운임지수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 컨테이너 운임

(종합운임지수: 포인트, 유럽, 한국, 일본 동남아 항로 : \$/TEU, 미서안, 미동안 항로 : \$/FEU)

		1월 1주	전주대비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컨테이너선 시장									
종합운임지수	SCFI	1,061	-46.4	1,107	5,110	3,410	2,570	4,956	3,769
운임	유럽항로	1050	-28	1,047	7,797	4,846	3,651	7,714	6,078
	미서안항로	1855	-9	1,418	8,117	5,656	3,931	7,444	5,317
	미동안항로	2845	-222	3,096	11,833	8,514	4,679	11,976	8,353
	한국항로	238	0	225	456	321	184	386	286
	일본항로	331	0	281	362	320	251	340	285
	동남아항로	175	-13	189	1,537	837	840	1,494	9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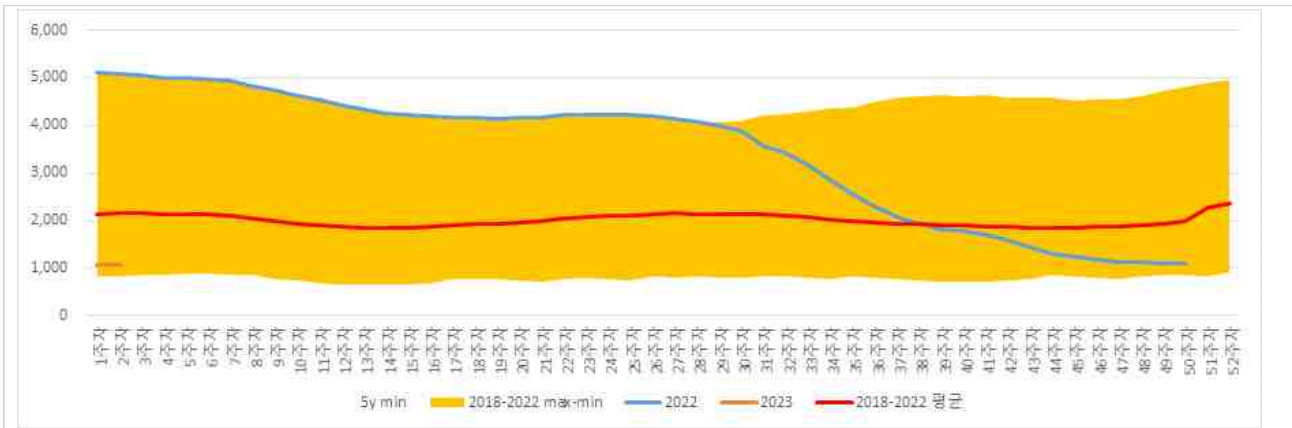
자료: 상하이해운거래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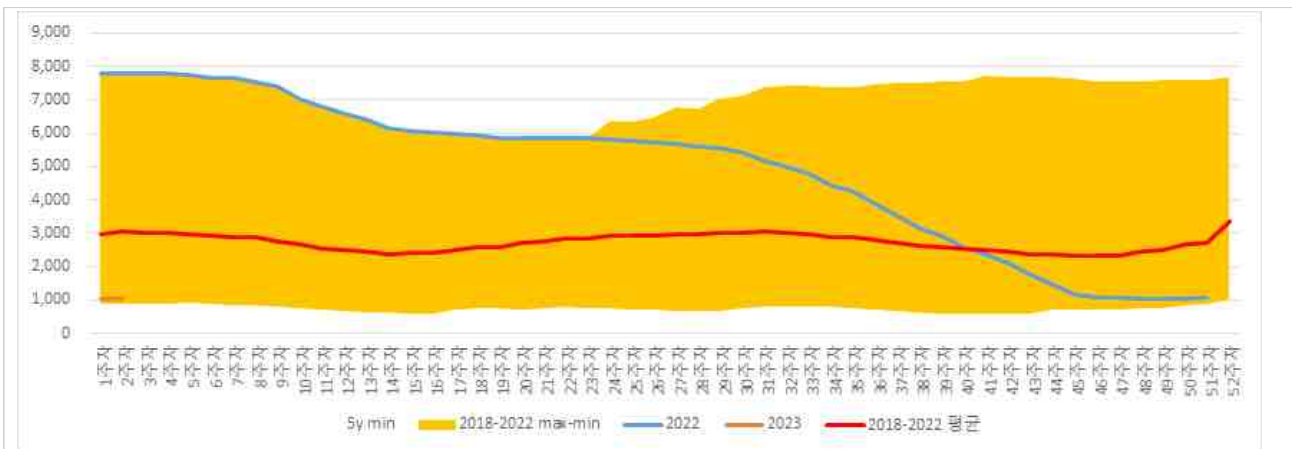
2 운임전망

| 1월 2주('23.1.9~'23.1.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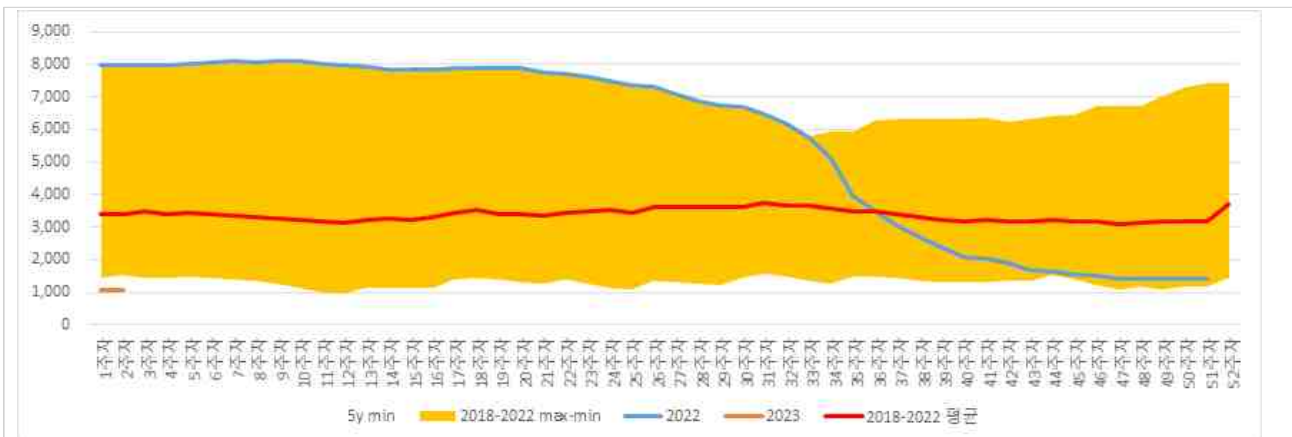
SCFI 지수는 약보합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유럽운임은 약보합 기록할 것으로 전망



아시아-북미운임(서부)은 약보합 기록할 것으로 전망





## 4. 탱커선

류희영 연구원 | hyryu@kmi.re.kr | 051-797-4643

## 1 유조선-동향분석

I 유조선 WS(VLCC World Scale) : 2주 전(12월 4주) 대비 22.4p 하락한 55.0 기록

(운임) 전주 대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하락세를 보임

(달러/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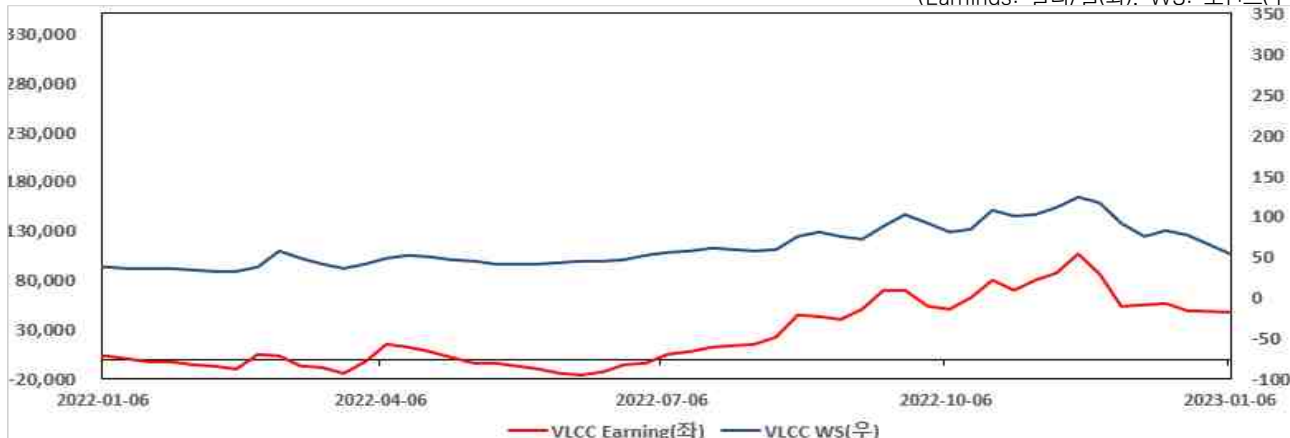
구분	1월 1주(WS)	전주 대비 차이		
중동-중국 항로(TD3C)	55.0	▼	22.4	28.9 %
Ras Tanura(중동) - Loop(미 걸프만) VLCC 280K	38.0	▼	12.0	24.0 %
Ras Tanura(중동) - Ningbo(중국) VLCC 270K	54.0	▼	17.0	23.9 %
Bonny Off(서아프리카) - Ningbo(중국) VLCC 260K	55.0	▼	16.5	23.1 %

(동향) 중국 코로나19 감염 확산,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원유 수요 둔화 현상 지속

- 중국의 코로나19 완화 정책 추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으며, 미국 긴축 기조 유지,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불확실성이 계속되면서 시황이 약세를 보임
- 글로벌 제재의 여파로 러시아산 원유가 올해 큰 폭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원유 물동량 감소로 시황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OPEC은 올해 1분기 생산량을 전년 1분기 대비 약 85만 배럴 감소한 평균 1,010만 배럴로 추정했으며, IEA는 약 14% 감소한 960만 배럴로 추정함

VLCC 중동-중국(TD3C) 운임 및 지수 :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 유조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1월 1주	전주대비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유조선 시장(현물)									
중동-중국	운임지수	55	-	32.4	123.3	63.3	28.4	65.1	35.4
항로(TD3C)	평균 수익	32,380	-	-24,517	101,230	16,685	-6,779	14,966	-526
VLCC	1년 용선료	39,500	0	15,000	47,500	25,644	18,500	24,125	20,851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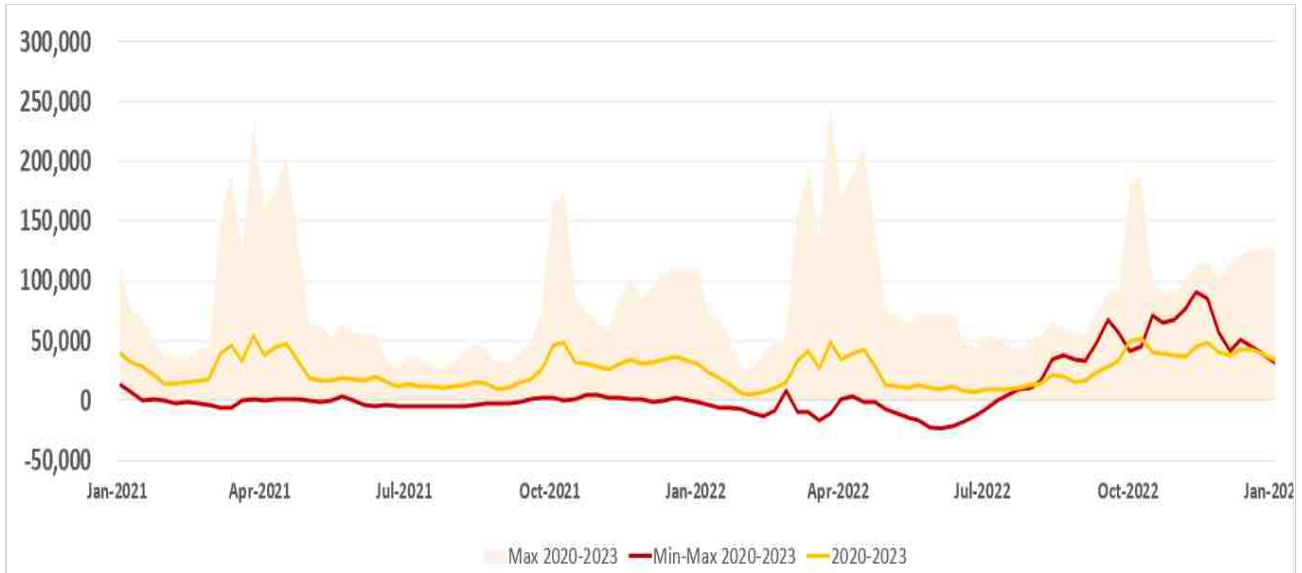


## 1 유조선-기술분석

수익 추세선은 전주 대비 대폭(약 27%) 하락함

VLCC 중동-중국(TD3C) TCE(Time Charter Equivalent)

(달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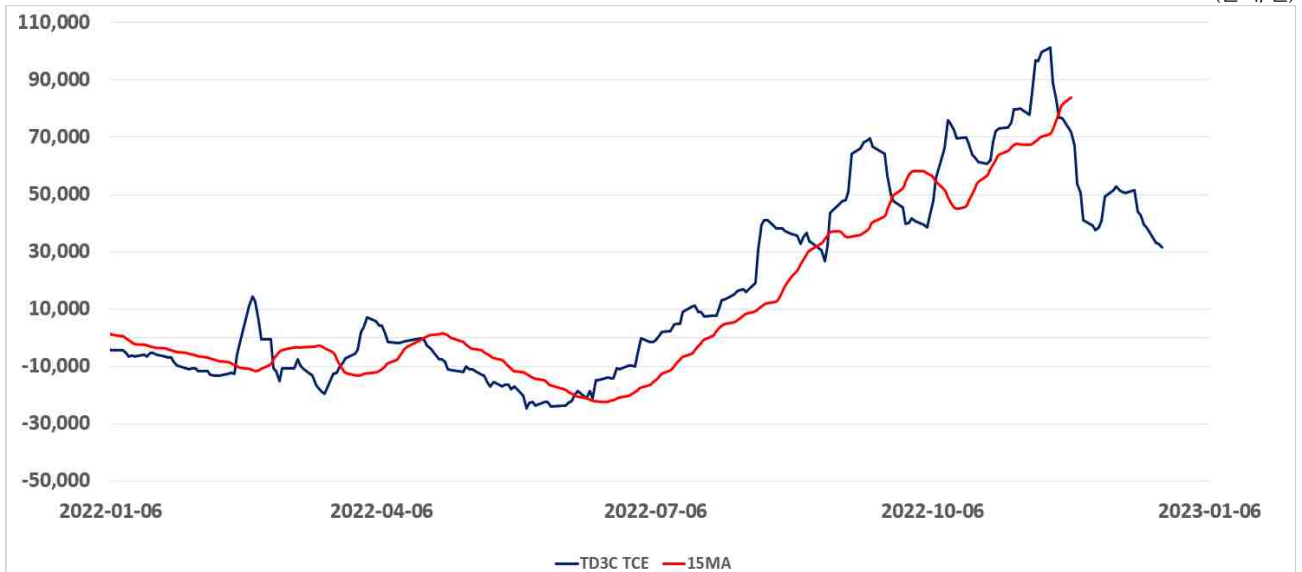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수익 추세선(파란색)은 전주에 이어 하락추세가 지속됨

VLCC 중동-중국(TD3C) 이동평균(MA)

(달러/일)



자료: Clarkson



## 2 석유제품선-동향분석

■ 석유제품선 WS(MR World Scale) : 2주 전(12월 4주) 대비 76.2p 하락한 271.5 기록

(운임) 전주 대비 대부분의 항로에서 운임지수(WS)가 하락세를 보임

(달러/톤)

구분	1월 1주(WS)	전주 대비 차이		
인도-극동 항로	271.5	▼	76.2	21.9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75K(LR2형)	235.0	▼	80.0	25.4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55K(LR1형)	275.0	▼	105.0	27.6 %
Ras Tanura(중동) - Chiba(일본) 35K(MR1형)	350.0	▼	137.5	42.9 %

(동향) 미국 텍사스지역 태풍으로 정제시설 일시정지, 단기적으로 운임에 악영향 예상

- 현재 세계 석유 수급과 정제마진에 영향을 미치는 미국이 태풍 엘리엇의 영향으로 텍사스에 위치한 미국 정유사 EXM, LYB, EXM 등이 일시적으로 정제설비 폐쇄에 돌입했으며, 이는 약 150만 b/d로 해당 설비 규모는 글로벌 전체 정제시설 규모의 2% 수준임
- 중국은 작년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석유제품 수요의 내수 급감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 석유제품 수출 쿼터 증가를 결정했으며, 해당 물량이 러시아산 석유제품 공급 감소로 인한 악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추가적인 상황 하락을 방어해줄 것으로 전망됨

## 석유제품선 운임 및 지수

(Earnings: 달러/일(좌), WS: 포인트(우))



자료: Clarkson

## 석유제품선 운임

(운임지수: WS, 수익과 용선료: 달러/일)

		1월 1주	전주대비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제품선 시장(현물)									
인도-극동 항로	운임지수	271.5	-	120.1	447.1	277.7	80.6	160.0	120.1
	평균 수익	49,832	-	6,216	72,180	38,274	-96	15,345	7,642
MR	1년 용선료	28,000	0	12,357	30,250	20,570	11,625	13,000	12,445

주: 인도-극동(Pacific Basket) 항로는 4일 평균(월-목) 사용. 전주비도 동일기간 평균 적용

자료: Clark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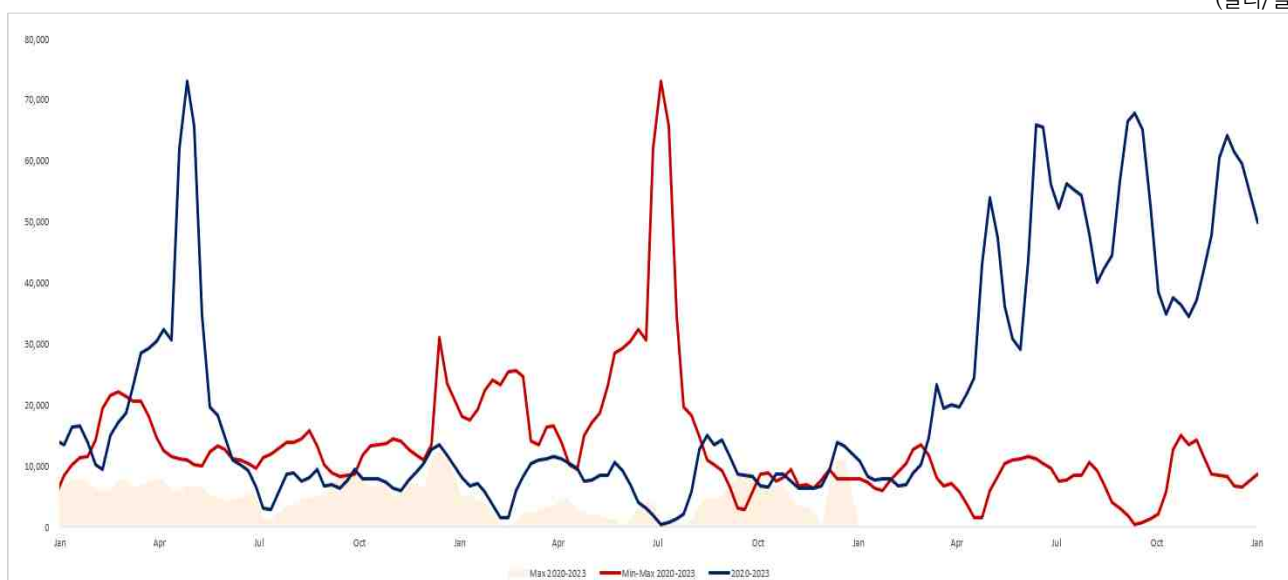


## 2 석유제품선-기술분석

■ 수익 추세선은 전주 대비 약 16.3% 하락함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달러/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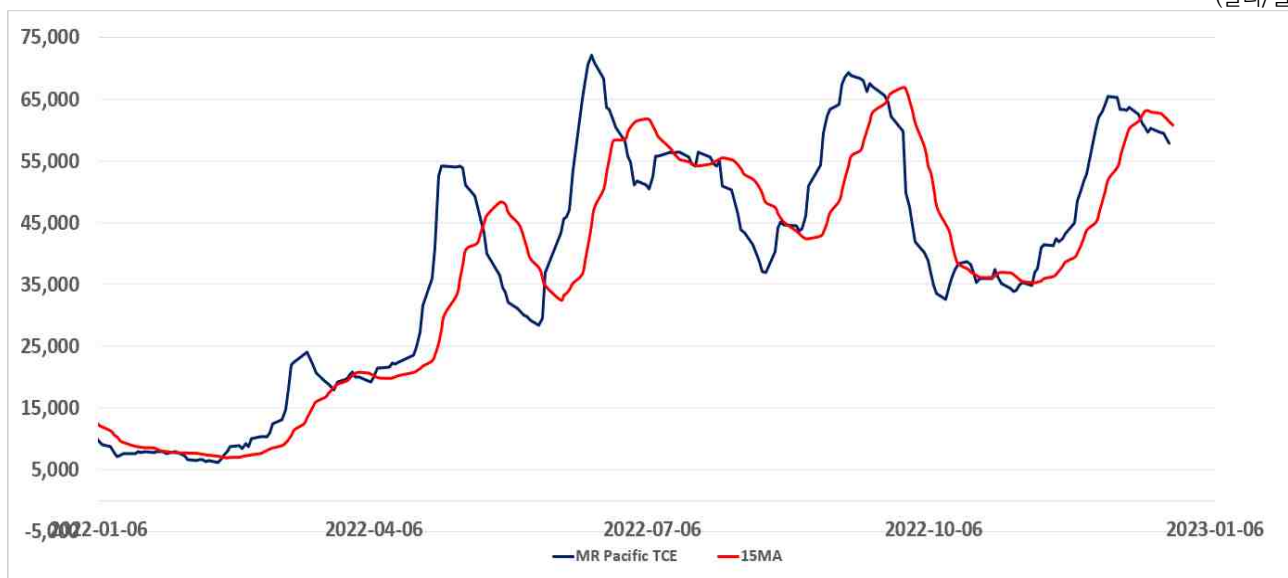


자료: Clarkson

■ 수익 추세선은 지난 연말에 이어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임

MR 인도-극동(Pacific Basket) 이동평균(MA)

(달러/일)



자료: Clarkson



## 5. 중고선

### 1 동향분석

■ 건화물선 중고선가 지수는 24.05로 전주와 동일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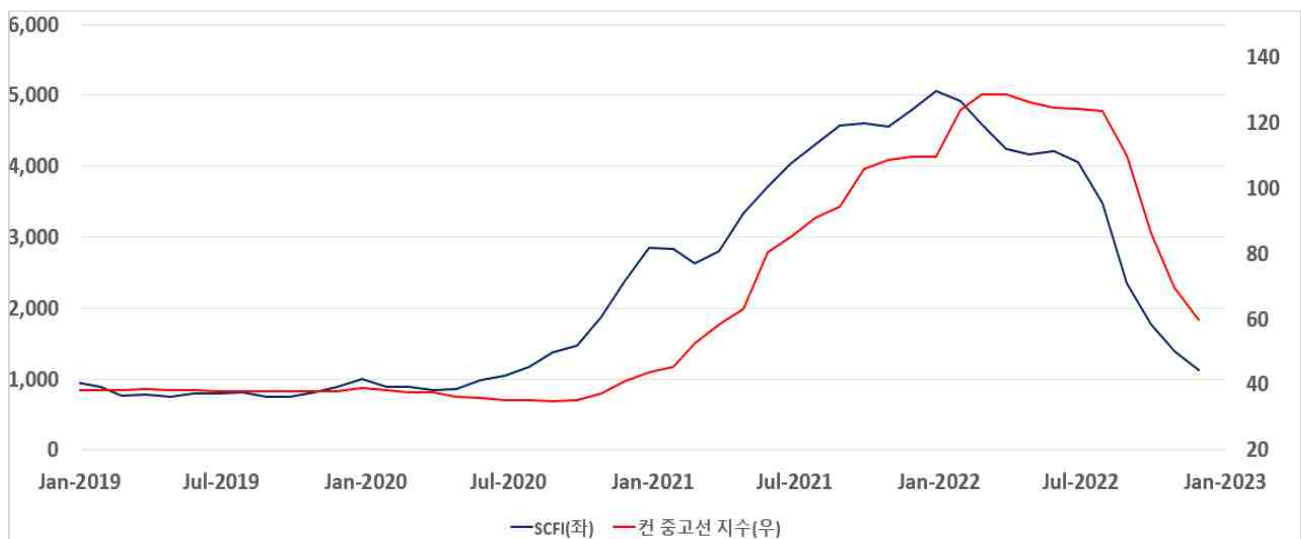
건화물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주: 건화물선 중고선지수는 선형별 5년 중고선가를 가중평균하여 계산되었음  
자료: Clarkson

■ 컨테이너선 중고선가 지수는 59.7로 전월 대비 9.9p 하락함

컨테이너선 운임지수와 중고선 지수



자료: Clarkson



## 2 거래실적

('22.12.30~'22.01.05)

## I 건화물선, 컨테이너선, 탱커선 등 60건의 중고선 거래 발생

선종	선명	건조 년도	선형	단위	매매일자	가격 (백만달러)	매도자	매수자
Tanker	Cosgreat Lake	2002	298833	DWT	2023-01-06	39	COSCO Shpg Energy	Middle Eastern interests
Bulk	Kirishima Sky	2014	35309	DWT	2023-01-06	16.5	First Marine Service	Turkish interests
Tanker	Syra	2010	105309	DWT	2023-01-06	39.5	Eastern Med	Middle Eastern interests
Tanker	Ice Transporter	2006	146270	DWT	2023-01-05	47.5	Dynacom Tankers Mgmt	Undisclosed interests
Tanker	Mike R	2006	146427	DWT	2023-01-05	49	Westport Tankers	Middle Eastern interests
Bulk	Aquanavigator*	2011	179905	DWT	2023-01-04	25	GoodBulk	Greek interests
Bulk	Aquasalwador*	2012	180012	DWT	2023-01-04	27	GoodBulk	Greek interests



## 6. 주요 해운지표

(2022.12.30 기준)

주요 해운지표 추이		금주	전주 대비	1월 평균	2022년			2021년		
					최저	최고	평균	최저	최고	평균
중고선가 (\$ Million)										
건화물선(5년)	Panamax	-	-	-	18.0	18.0	18.0	18.0	18.0	18.0
유조선(5년)	VLCC	100.0	5	92.8	70.0	95.0	80.8	63.0	72.0	69.1
컨테이너선(10년)	Sub-Panamax	10.0	0	10.0	21.0	56.0	45.3	14.0	44.0	32.5

자료: Clarkson

<b>신조선가 (\$ Million)</b>									
건화물선 Panamax	33.5	-0.5	33.6	33.5	37.0	35.5	25.5	34.3	30.9
유조선 VLCC	120.0	0	120.0	114.0	120.0	117.7	85.0	112.0	98.7
컨테이너선 Sub-Panamax	42.0	-0.5	42.4	40.0	43.0	42.3	30.0	40.0	35.8

자료: Clarkson

연료유 (\$/Tonne)										
380 CST	Rotterdam	392.0	26.5	370.7	353.8	688.8	512.3	311.3	488.0	396.2
	Singapore	405.0	30.0	386.0	373.8	773.5	525.8	324.8	523.5	416.5
	Korea	471	36.3	438.5	417.5	784.5	580.8	361.8	574.5	445.9
	Hong Kong	417.5	-8.3	426.7	413.8	803.8	556.6	325.8	529.0	426.8
VLSFO	Rotterdam	-	-	538.0	526.0	980.0	732.6	387.8	605.8	505.6
	Singapore	-	-	598.8	598.8	1137.8	807.8	413.0	642.5	535.1
	Hong kong	-	-	630.8	606.0	1189.3	821.9	404.5	627.3	533.2

자료: Clarkson

주요 원자재가 (\$)										
철광석 (\$/Tonne)	국제價	-	-	-	-	-	-	105.4	233.7	180.6
	중국産	-	-	-	-	194.5	143.0	-	264.6	193.0
연료탄 (\$/Tonne)	국제價	-	-	-	-	141.3	123.6	-	244.3	127.7
	중국産	-	-	-	-	192.9	142.3	-	420.7	182.4
원료탄 (\$/Tonne)	호주산	-	-	-	-	757.5	146.2	-	501.1	272.0
	내륙(몽골)	-	-	-	-	-	-	-	-	-
	중국産	-	-	-	-	529.5	118.6	-	577.7	337.4
곡물 (센트/부셸)	대두(국제)	1492.5	-39.50	1492.5	1,344	1,769	1,538.1	1,188.5	1,642.5	1,372.4
	밀(국제)	743.5	-48.50	743.5	729	1,425.3	905.1	601.8	856.0	702.5

자료: mysteel, CBOT,

<b>세계 경제권역별 교역액 (\$ Million)</b>									
		11월	12월	1월	2022년 합계	2021년 합계	2020년 합계	2019년 합계	
ASEAN	수출	10,546	11,248	10,268	10,268	108,50	89,017	95,086	
	수입	5,745	6,556	7,180	7,180	67,703	54,830	56,186	
NAFTA	수출	9,673	10,385	10,426	10,426	11,914	87,821	89,839	
	수입	7,954	6,969	8,319	8,319	87,464	68,263	73,797	
EU	수출	5,299	5,968	5,414	5,414	63,606	47,870	52,758	
	수입	5,059	6,700	5,023	5,023	65,913	55,517	55,795	
BRICs	수출	17,988	18,160	16,049	16,049	193,174	155,346	163,882	
	수입	17,333	17,218	16,498	16,498	170,649	128,653	131,656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1. 본 보고서의 내용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공식적 견해와 다를 수 있음
2. 인공지능(AI) 분석을 활용한 예측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이 개발 중인 분석모델의 예측결과로서 제공되는 내용임. 향후 산학연 공동연구를 통하여 모델의 성과를 지속적으로 향상시켜 나갈 예정임
3. 인공지능 분석을 포함한 본 보고서의 예측결과는 단순한 '참고용' 자료이므로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이용자의 의사결정으로 인하여 초래된 손실, 손해 또는 기타 법적 의무에 대해서는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음. 이 자료를 수령하는 것으로 정보 이용자는 위에 언급된 모든 책임의 한계에 대하여 명확히 인식하고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함